

내 꿈을 위해 해야할 일들은?

대구교육청, 청소년 국민소통포럼 '옥스퍼드 티투스'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11월 2일 오후 5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영국 옥스퍼드 시 운영하는 세계적 강연 프로그램인 '옥스퍼드 티투스' (이하 티투스)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후원으로 국내 최초로 청소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옥스퍼드 티투스' 행사는 유럽의 TED(Technology, Education, Design)라 불리기도 하는 세계적 강연회이다.

이번 한국 강연에는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에 재직 중인 '테니스 노블 교수'와 옥스퍼드 티투스 대표인 '한국인 김성희 교수'가 옥스퍼드에서 참여한다.

그리고 국내 연사로도 '세계 최고 교수'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황봉문 교수', '한국 청년 대표'로 '세계 최연소 사막아리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윤승철 씨와 아리랑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아리랑 페스티벌'을 기획

했던 문원우 씨가 함께 참여한다.

포신중학교 LadHit 동아리의 모듬 북 축하공연으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청년 연사를 별도로 초청하여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기회를 마련했다.

강연을 마치고는 정중으로 참가한 대구 중고등학교생 500여 명이 연사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좌담회 시간도 가진다.

세계 생물학의 대석학자이 전한파 인사로 널리 알려진 테니스 노블 교수는 '청춘이여 충동하고 재생하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시작한다.

테니스 노블 교수는 지난해 개최된 '2015 대구 영어 토크 콘서트 특! 특!' 행사에서 대구 중·고등학교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Dinner Jacket'이란 타이틀로 영상 강연을 하여 대구의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성희 티투스 대표 김성희 교수는 'Life is not a

rehearsal, Keep Going(인생은 연습이 없다. 계속 지속하라)' 주제로 늦은 나이에 옥스퍼드로 늦깎이 유학생이 되어 도전하였던 자전적 스토리를 들려준다.

물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황봉문 교수는 물임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었던 실제 사례를 들려주어 청소년들의 공부와 지적 탐구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청년 연사로 참여한 문원우 대표는 자신이 전 세계를 돌면서 아리랑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던 스토리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문화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전한다.

모임 전문가인 윤승철 소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줄 계획이다.

김성희 티투스 대표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세상을 보



관람객 발길 끊이질 않네~

지방자치박람회 경북홍보관, 인기 최고 관람객 북적

지난 27일 부산 비스코에서 개막한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경상북도 홍보관이 최고의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청 신청사의 외형을 본뜬 정색홍보관을 설치하고 할매할배의 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삼국유사 목판복원사업 등 우수시책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신도청 포토존을 설치하고 수문장을 매치해 관람객들이 경쟁적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진경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석굴암과 육연정사를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관람

객들이 긴 줄을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경오미자 요리를 시용하기도 해 화제를 모았던 경북마을기업홍보관에도 연일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윤연오미자를 판매하고 있는 윤진오정미사업자(대표 김원자)는 행사기간 4일간 판매량을 이틀 만에 동나도 긴급 공수해 오기도 했다

보헤 많은 공무원이 참관목표 하고 참가 행사에도 우수사례로 반영하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신도청 모형의 홍보관, 포토존 운영,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시책과 성공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인데 외부방문객이 너무 좋아 부듯하다"며 즐거워했다.

대구여고,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 2명 최종 합격

지난 10월 21일 발표된 제69기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전결과에서 대구여고등학교(교장 하종복) 3학년 재학생 2명이 최종합격하는 영광

을 누렸다.

영광의 주인공은 대구여고 3학년 인문사회과정 김재윤 학생과 수리과 학과생 신하연 학생이다.

이번 사관생도 선발 경쟁률은 남자는 34.2대 1, 여자는 83.6대 1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합격자는 남자 185명, 여자 20명이다.

이번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은 조종 분야외의 정원을 100% 수시전

형으로 진행했다.

1차 전영은 국어, 영어, 수학과목 평가, 2차 전영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역사 안보관 논술, 면접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대장을 상실한 관리하여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통대장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

- ▶ 매년는 4800여명의 학식을질러 69조원의 발달성질로 구성
-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3배-8.5배 높음
- ▶ 여성흡연은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위험, 영유아에 불연사 위험 증가
- ▶ (청소년흡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대폭 증가
- ▶ (중독성 1위)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 마약보다 중독성 높음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율 비교

담배가격	흡연율
대한민국 2,500원	흡연율 23.3%
영국 13,000원	흡연율 13.9%
일본 18,200원	흡연율 13.8%
미국 18,400원	흡연율 12.8%
독일 18,800원	흡연율 12.4%
프랑스 9,400원	흡연율 30.8%
중국 11,350원	흡연율 27.3%
아일랜드 14,370원	흡연율 31.9%

한국

호주

유럽연합

우루과이

청년 취업문제 같이 고민하자

경북도 '경북 북부권 대학 연합 지역기업 탐방단 발대식'

경상북도와 중앙대학교는 28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 이만근 중앙대학교 부총장, 참여기업, 대학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대학 연합 지역기업 탐방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지역기업 탐방단 발대식은 지역기업과 청년 간 소통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북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장조일자리센터로 지정된 대학을 포함해 4개 권역별로 추진된다.

동북권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한동대학교, 중서북권은 구미대학교, 남부권은 대구대학교, 북부권은 중앙대학교가 사업의 거점 역할을

맡아 권역별 타 대학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점별 주관대학이 타 대학과 손잡고 지역의 우수기업을 직접 탐방해 지역기업의 복지, 근무환경 등 올바른 정보를 얻고, 지역기업 바로알기 현장투어를 통해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해 시상하는 지역기업 탐사 리포트 콘테스트가 있다.

이번 북부권 대학 연합 탐방은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기업탐사와 달리 공공기관, 병원 등의 기관이 참여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탐방으로 진행된다.

탐방에 참여한 기업은 살펴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에는 중앙대학교도전기업대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기지를 방문해 최신기술인

도노래일 운영 실태와 차량구조 기능을 학습하고, '안동고도스'에는 중앙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방문해 교정직 공무원들의 임무를 간접 체험한다.

'안동병원'은 중앙대와 문경대의 보건-의료계열 전공 학생들이 방문해 여러 가지 취업 전략을 배우게 되며 'KT&G 영주공장'에는 4개 대학 연합으로 학생들이 방문해 회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이번 북부권 기업탐방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병원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좋은 현장의 체험 기회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앞으로 학교와 지자체, 기업 등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취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품 대구사과 세계에 알리다

대구시, 국제학생 농업이해 프로그램으로 대구 홍보



대구시는 한국국제협력단(CKP)의 초청으로 경북대학교 국제농업개발연구원에서 '식량안보 및 농업개발학과 석사학위 과정'에 참여 중인 농업 관련 고공무원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학위취득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10월 28일 '사과 따기와 커피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경북대 국

제농업훈련원이 함께 추진 중인 '국제학생을 위한 대구농업이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대구시는 농업으로 대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위취득을 위해 지역대학에 유학 온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올해 한국요리 만들기, 꽃박람회,

달성농업기술센터, 달창 저수지, 비슬산, 도시농업박람회, 드론체험, 지역축제별 참가 등 다양한 농업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20여 명의 외국 학생들을 참여해 대구와 대구농업을 알리는 좋은 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과따기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는 풍류공원에서 진행하여 명품 대구 사과와 맛과 함께 사과 재배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앞서 오전에는, 커피 원두를 수확해 저온보관으로 품질 고급화를 추구하는 '커피페어링'을 방문해 원두의 보관관리와 가공, 유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했다.

참여자 중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온 학생은 "자국 커피의 가공·유통과정과 품질 고급화 방안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소비자의 가공·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대구시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으로 33개 업체를 확정하고 전문식당 지정 운영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시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으로 33개 업체를 확정하고 전문식당 지정 운영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시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으로 33개 업체를 확정하고 전문식당 지정 운영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지하는 중국 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음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문식당' 지정제를 운영한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공모·모집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이번에 33개 업소를 확정했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당 소규모 콘텐츠 온라인 홍보, 홍보 제작 전국 인터넷 방송, 제공, 중국어 메뉴판 지원, 서비스 매뉴얼 보급 등 지정식당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